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행복감을 매개로*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on Marital Adjustment: Mediating Effects of Anxiety and Sense of Well-Being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이재림
교수 김영희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Jae Rim Lee

Professor : Yeong Hee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anxiety, and sense of well-being on marital adjustmen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44 married men and 324 married women, who had preschooler childr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in both men and women had a direct effect on anxiety and sense of well-being. Second,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for both men and women were indirectly influenced by marital adjustment through anxiety and sense of well-being. Third, anxiety of women influenced dyadic consensus at greater degree than men's. Fourth, anxiety and sense of well-being in both men and women had a direct effect on dyadic consensus, dyadic satisfaction, dyadic cohesion and dyadic affection expression. Finally, in women's cases, it was indicated that emotional cut-off from mother directly influences marital adjustment.

주제어(Key Words) : 원가족 분화경험(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불안(anxiety), 행복감(sense of well-being),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

Corresponding Author : Yeo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2 Gaesin-dong, Heungdeok-gu, Cheongju-shi,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3147 Fax: +82-43-260-2793 E-mail: enjoy@chungbuk.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I. 서론

부부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자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로 가족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 그러나 최근 상담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부관계의 증가와 이혼율의 급증은 많은 사람들이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4년 6만 5천명이었던 이혼 건수가 2006년 12만 5천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조이혼율은 2.6건으로 OECD 가입국 중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에는 첫 번째로 높은 이혼국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부부관계의 문제는 당사자 자신들의 심리적 복지는 물론이고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별히 이혼의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육체적 역기능, 재정적 감소,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일련의 위기상황을 제공한다. 또한 이혼의 발생 및 증가는 개별 가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이영숙, 박화운, 1999). 따라서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루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부부간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가족 간의 유대가 중시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보편적인 서구사회에 비하여 자녀에게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정문자, 2000).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부부관계에서 재현하기 쉽다(남순현, 한성열, 2003). 또한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가 성공적인 결혼의 중요 지표가 되며(Stahmann & Hiebert, 1980), 부부가 자신의 원가족과 유사한 가정을 이루거나 원가족에 대한 반발로 정반대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고, 두 사람이 성장해 온 원가족의 패턴이 서로 차이가 날수록 이들의 결혼생활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Olson & Hawley, 1992). 또한, 자기 원가족의 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가 높다(차정화, 전영주 2002; 최현미, 1997)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가족 분화경험과 부부갈등, 결혼만족도 등 부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서연석, 1999; 정은희, 2004; 한영숙, 2007)은 원가족 경험이 부부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이는 부모가 어린 시절 원가족과 맺었던 경험을 토대로 배우자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전연진, 2002). 그러므로 결혼을 통하여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부부들이 그들 중심의 가족체계에 잘 적응하는가 못하는가의 여부는 부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원가족 관련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실제 원가족의 영향력이 핵가족 부부에게 순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

을 것이다.

원가족의 근원적인 영향력은 깊이 스며들어 결혼을 통하여 새롭게 가족을 이룬 개인과 그 개인의 현재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 Bowen(1976)은 정신분열 모자관계에서 '결합불안'과 '분리불안'이 번갈아 나타나는 모자공생관계를 관찰하였으며 분화 개념의 저변에 불안이라는 정서가 공존하고 있어 원가족 분화수준이 낮을 경우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Benson, Larson, Wilson과 Demo(1993)은 후기 청소년들의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원가족 영향의 메커니즘으로 불안이 원가족의 용해와 통제를 증대하는 매개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혼자녀 250명을 대상으로 조부모, 부모, 성인자녀를 포함한 삼세대의 가족분화 전수과정을 본 연구(남순현, 2000)에서 성인자녀의 불안이 가족분화 전수의 매개요인임을 보고하고 있으며, 원가족 분화와 낭만적 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연구(전영주, 2002)도 불안이 매개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가족의 정서과정은 여러 세대를 거쳐서 구조화된 유형으로 형성되며, 이러한 역사적 반복은 불안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수된다고 강조한 Bowen(1978)의 주장과 가족분화수준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때 낮은 수준의 가족분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결과로 불안과 같은 정서가 전수될 수 있지만, 반면에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에서 파생되는 긍정적인 결과로 개인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복감과 같은 정서도 전수될 수 있다(남순현, 2000)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만족감이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정서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부부만족도나 부부행복도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어 행복감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긍정심리학의 발달로 행복이 대인관계 패턴이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원가족에서 기인한 행복감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과의 분화경험이 불안과 행복감을 매개요인으로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적 자율성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온 경향이 있는 자아분화(Friedman, 1991)와 가족 안에서 개인의 정서적 자율성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개념인 가족분화(Anderson & Sabatelli, 1990, 1992)를 구분하기 위해, 원가족 분화를 한 개인이 원가족에서 부모와 나누는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리로 나눈 전연진(2002)의 분류를 사용하되, Bowen의 분화 개념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한 척도인 Skowron(1995)의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삼각화

를 제외하고 원가족에서 분화가 잘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원가족 분리와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원가족 단절의 2가지 하위요인을 사용하며 정서적 분리를 정서적 단절과 구분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정서적 분화로 하여 결혼 적응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원가족 분화경험과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나타나는데,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원가족과의 정서적 단절, 그 중에서도 남성 쪽의 정서적 단절이 남편과 아내 모두의 결혼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했다는 연구(Skowron & Elizabeth, 2000), 결혼만족에 대한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수준의 영향력이 남편에 있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전춘애, 1994), 여성에게 있어 자기분화의 하위요인들이 결혼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조은경, 2001)들이 있어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성에 따라 원가족 분화경험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원가족 분화경험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성차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해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성에 따라 살펴보고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을 강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교육 현장, 아동·가족 상담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구문제

원가족 분화경험이 불안 및 행복감을 매개로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경로는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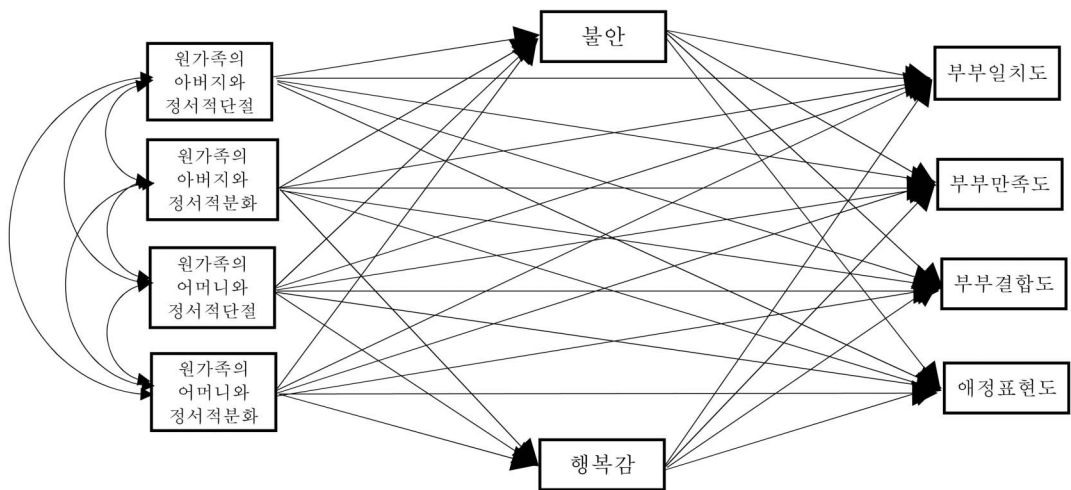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가족 분화경험의 하위요인인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와 행복감 및 불안이 결혼적응의 하위요인인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에 미치는 경로를 성에 따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시와 충청남도 대전시 소재의 유아교육기관, 회사, 관공서 등을 통해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사의 경우에는 개별 사업장에서 한 사람의 책임자를 섭외하여 연구자는 책임자에게 조사대상의 범위와 주의사항 및 연구의 목적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책임자가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작업을 맡아 진행하였다. 유아교육기관의 경우는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에 유아를 통해 각 가정으로 질문지를 보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응답을 하도록 하고 응답한 질문지는 다시 유아를 통해 유아교육기관에 가져오게 하여 교사가 이를 취합한 후에 연구자가 수거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50명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2009년 4월 10일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그림 1>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 및 결혼적응에 대한 이론적 경로모델

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로 2009년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되었다. 총 8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 612부(76.5%)가 회수되었으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와 부와 모 중에 한명만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68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남성이 244명, 여성이 324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원가족 분화경험

원가족 분화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연진(2002)이 개발한 원가족 분화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 개인이 결혼, 공부, 취직 등의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까지 경험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52문항으로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화의 3개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원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분화정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삼각화 문항을 제외하고, 정서적 단절과 정서적 분리 2개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32문항으로 원가족 분화경험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93,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71,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93,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72로 나타났다.

2) 불안

개인의 불안 수준을 알기 위해서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의 상태-특성 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중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20문항 중 15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3) 행복감

개인의 행복감은 Kammann과 Flett(1983)가 개발한 행복감 척도로 측정하였다. 행복감 척도는 최근에 경험한 일반적인 행복감을 묻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서술형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긍정형의 질문인 11문항 중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4) 결혼적응

결혼적응도는 Spanier(1976)의 DAS(Dyadic Adjustment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의 일치도, 부부의 만족도, 부부의 결합도, 부부의 애정표현도의 4개의 척도로 되어있다. 문항 수는 총 32문항으로 부부일치도 13문항, 부부만족도 10문항, 부부결합도 5문항, 애정표현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2개 문항중 27개의 문항은 6점 Likert방식, 2문항은 5점 Likert방식, 1문항은 7점 Likert방식을 적용해서, 긍정적인 대답에 대해서는 5-0, 4-0 또는 6-0까지 적응점수를 주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대답에 대해서는 위와 반대의 점수로 적응점수가 측정되었다. 그리고 30번과 31번의 문항에서는 ‘있었다’에 0점, ‘없었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부부결혼적응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부부의 결혼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부부일치도 .90, 부부만족도 .85, 부부결합도 .89, 애정표현도 .7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5.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244명(43.0%), 여성이 324명(57.0%)이었고, 30세 이하가 43명(7.6%), 31-35세가 217명(38.2%), 36-40세가 214명(37.7%), 41세 이상이 (16.5%)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172명(30.3%), 대졸이 353명(62.1%), 대학원 이상이 43명(7.6%)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이 42명(7.4%), 행정/사무직이 188명(33.1%), 상업/서비스업이 44명(7.7%), 생산/기술/노무직이 40명(7.0%), 전업주부/무직이 254명(44.7%)이었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522명(91.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대가족은 46명(8.1%)이었다. 가정 내 월평균 총 수입은 200만원 미만인 64명(11.3%), 200-300만원 229명(40.3%), 300-400만원 159명(28.0%), 400만원 이상이 116명(20.4%)을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N = 568)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자	244(43.0)	가족형태	핵가족	522(91.9)
	여자	324(57.0)		대가족	46(8.1)
연령	30세 이하	43(7.6)	월 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64(11.3)
	31세~35세	217(38.2)		200~300만원	229(40.3)
	36세~40세	214(37.7)		300~400만원	159(28.0)
	41세 이상	94(16.5)		400만원 이상	116(20.4)
학력	고졸이하	172(30.3)	자녀수	1명	119(20.9)
	대졸	353(62.1)		2명	356(62.7)
	대학원이상	43(7.6)		3명 이상	93(16.4)
직업	전문직	42(7.4)	결혼기간	5년 이하	99(17.4)
	행정/사무직	188(33.1)		6년~10년 이하	319(56.2)
	상업/서비스업	44(7.7)		11년~15년 이하	110(19.4)
	생산/기술/노무	40(7.0)		16년 이상	40(7.0)
	주부/무직	254(44.7)			

차지하였다. 자녀수는 1명이 119명(20.9%), 2명 356명(62.7%), 3명 이상이 93명(16.4%)이었다. 결혼기간은 6-10년 이하가 319명(56.2%), 11-15년 이하가 110명(19.4%), 5년 이하가 99명(17.4%), 16년 이상이 40명(7.0%) 순으로 나타났다.

2.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이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에 따른 경로모형

1) 기혼남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 및 결혼적응

기혼남성의 결혼적응과 관련된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의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3($p <$

.05)에서 .66($p <$.001)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 18.98$ ($p >$.05, $df = 16$), $GFI = .91$, $AGFI = .98$, $NFI = .98$, $CFI = .99$ 로 모두 0.9 이상이며 $RMSEA = 0.03$ 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1〉의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기혼남성의 원가족과의 분화경험, 불안과 행복감, 결혼적응에 대한 경로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고, 모형의 대한 직접효과,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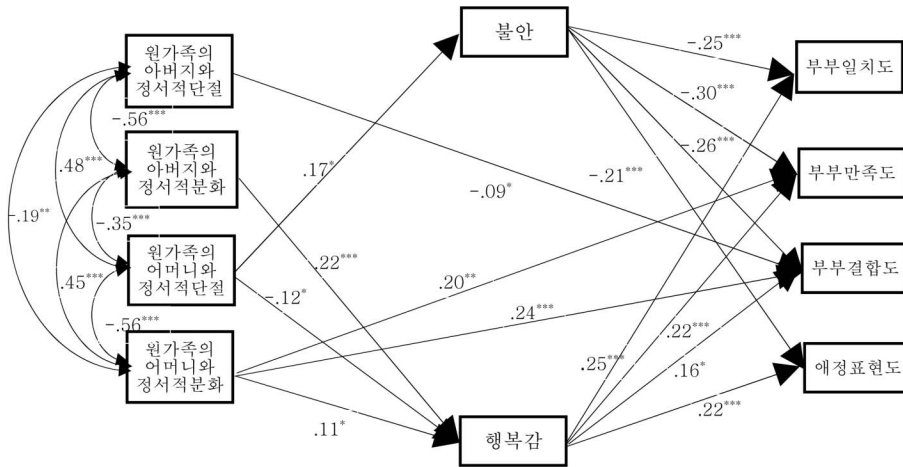
기혼남성의 경우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은 부부결합도에 -.09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

〈표 2〉 기혼남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 및 결혼적응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57***									
③	.48***	-.35***								
④	-.19**	.45***	-.56***							
⑤	.20**	-.19**	.23***	-.18**						
⑥	-.23***	.31***	-.25***	.29***	-.52***					
⑦	-.13*	.20**	-.22***	.24***	-.40***	.42***				
⑧	-.18**	.28***	-.27***	.36***	-.47***	.45***	.62***			
⑨	-.17**	.23***	-.24***	.33***	-.39***	.37***	.62***	.66***		
⑩	-.21***	.18**	-.24***	.16*	-.36***	.38***	.64***	.57***	.52***	
평균	1.94	3.25	1.56	3.73	1.92	2.58	3.42	3.76	3.81	2.05
표준편차	.73	.74	.63	.79	.50	.49	.59	.61	1.24	.54

①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단절 ②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분화 ③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단절 ④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분화 ⑤ 불안 ⑥ 행복감 ⑦ 부부일치도 ⑧ 부부만족도 ⑨ 부부결합도 ⑩ 애정표현도

* $p <$.05 ** $p <$.01 *** $p <$.001.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기혼남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 및 결혼적응에 대한 경로모델

할 경우 부부결합도를 낮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정서적 분화는 남성의 행복감에 .22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행복감을 통하여 부부일치도에 .08, 부부만족도에 .08, 부부결합도에 .07, 애정표현도에 .08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이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를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이렇게 높게 지각한 행복감에 의해 결혼생활에서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도 간접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의 경우 불안에 .17, 행복감에 -.12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불안과 행복감을 통하여 부부일치도에 -.07, 부부만족도에 -.09, 부부결합도에 -.05, 애정표현도에 -.06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불안이 높아지고, 행복감이 낮아지며, 이렇게 높게 지각한 불안과 낮게 지각한 행복감에 의해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의 경우 남성의 행복감에 .11, 부부만족도에 .20, 부부결합도에 .24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복감을 통하여 부부일치도에 .03, 부부만족도에 .02, 부부결합도에 .02, 애정표현도에 .02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를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부부관계에 만족하고 몰입하는 정도와 부부간의 유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가 된 남성은

〈표 3〉 기혼남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 및 결혼적응과 관련된 변인의 직접·간접효과

성별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인
남성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09	-.01	-.09	부부결합도
		.22	.	.22	행복감
		.05	.08	.13	부부일치도
		.07	.08	.15	부부만족도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	.07	.07	부부결합도
		.	.08	.08	애정표현도
		.17	.	.17	불안
		-.12	.	-.12	행복감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06	-.07	-.13	부부일치도
		.	-.09	-.09	부부만족도
		.	-.05	-.05	부부결합도
		-.11	-.06	-.17	애정표현도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11	.	.11	행복감	
	.08	.03	.11	부부일치도	
	.20	.02	.22	부부만족도	
	.24	.02	.26	부부결합도	
불안	.	.02	.02	애정표현도	
	-.25	.	-.25	부부일치도	
	-.30	.	-.30	부부만족도	
	-.26	.	-.26	부부결합도	
행복감	-.21	.	-.21	애정표현도	
	.25	.	.25	부부일치도	
	.22	.	.22	부부만족도	
	.16	.	.16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	

자신의 행복감이 높고, 이로 인해 높아진 행복감은 결혼적응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안과 행복감이 남성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남성의 불안은 부부일치도에 -.25, 부부만족도에 -.30, 부부결합도에 -.26, 애정표현도에 -.21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행복감은 부부일치도에 .25, 부부만족도에 .22, 부부결합도에 .16, 애정표현도에 .22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이 높아질수록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혼남성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이 어떤 것인지 총효과를 살펴보면, 불안과 행복감이 부부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불안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경험과 불안이 부부결합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애정표현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행복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 및 결혼적응

기혼여성의 결혼적응과 관련된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의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5($p < .01$)에서 .75($p < .001$)로 나타났다.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 14.42$ ($p > .05$, $df = 12$),

$GFI = .92$, $AGFI = .97$, $NFI = .99$, $CFI = .99$ 로 모두 0.9 이상이며 $RMSE = 0.03$ 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기혼여성의 원가족과의 분화경험, 불안과 행복감, 결혼적응에 대한 경로 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고, 모델의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기혼여성의 경우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은 애정표현도에 -.14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부부간의 애정표현도를 낮게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는 여성의 불안에 -.25, 행복감에 .22, 부부일치도에 .15, 부부만족도에 .20, 애정표현도에 .21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의 불안과 행복감을 통하여 부부일치도에 .15, 부부만족도에 .14, 부부결합도에 .11, 애정표현도에 .10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를 많이 경험한 것이 재정관리, 인생관 및 가치관, 여가생활 등에 대한 부부의 일치정도를 높이고, 부부만족도와 애정표현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를 높게 경험한 여성은 불안이 낮고, 행복감이 높으며, 불안과 행복감과 같은 개인의 정서가 다시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와 같은 결혼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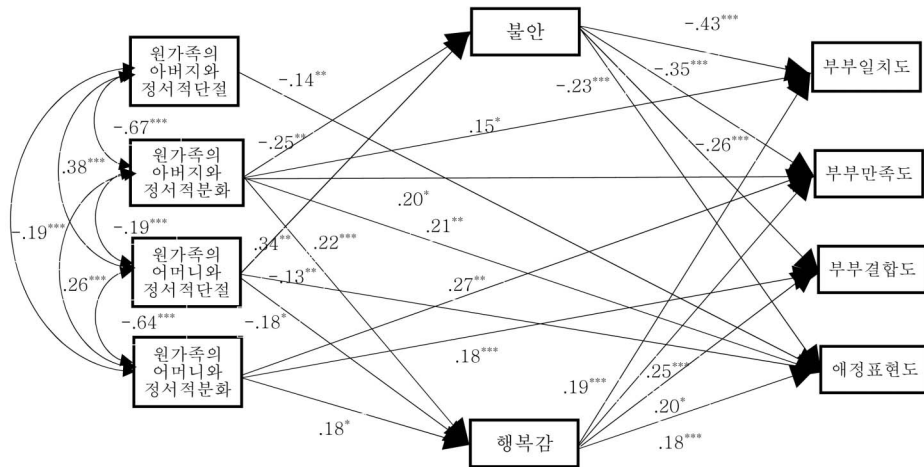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의 경우 불안에 .34, 행복감에 -.18, 애정표현도에 -.13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 및 결혼적응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67***									
③	.38***	-.19***								
④	-.19***	.26***	-.64***							
⑤	.23***	-.27***	.36***	-.27***						
⑥	-.25***	.30***	-.34***	.35***	-.57***					
⑦	-.18***	.29***	-.31***	.31***	-.60***	.50***				
⑧	-.27***	.40***	-.39***	.49***	-.61***	.59***	.75***			
⑨	-.16**	.25***	-.23***	.31***	-.42***	.41***	.68***	.64***		
⑩	-.15**	.25***	-.30***	.29***	-.42***	.40***	.67***	.66***	.50***	
평균	2.22	3.04	1.78	3.65	1.91	2.57	3.39	3.56	3.80	2.00
표준편차	1.05	.88	.86	.86	.58	.56	.76	.70	1.31	.62

①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단절 ②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분화 ③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단절 ④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분화 ⑤ 불안 ⑥ 행복감 ⑦ 부부일치도 ⑧ 부부만족도 ⑨ 부부결합도 ⑩ 애정표현도

* $p < .05$, ** $p < .01$, *** $p < .001$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 및 결혼적응에 대한 경로모델

그리고 여성의 불안과 행복감을 통하여 부부일치도에 -.18, 부부만족도에 -.16, 부부결합도에 -.08, 애정표현도에 -.11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 한 여성은 부부간의 애정표현도를 낮게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와의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여성은 불안을 높게 지각하게 되고, 행복은 낮게 지각하며, 이러한 개인의 정서는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결혼적응을 낮게 한다.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는 여성의 행복감에 .18, 부부만족도에 .27, 부부결합도에 .18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복감을 통하여 부부일치도에 .03, 부부만족도에 .05, 부부결합도에 .04, 애정표현도에 .03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를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행복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이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를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행복감을 높게 지각하게 되어 높아진 행복감을 통해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가 간접적으로 높아진다.

불안과 행복감이 여성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여성의 불안은 부부일치도에 -.43, 부부만족도에 -.35, 부부결합도에 -.26, 애정표현도에 -.23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행복감은 부부일치도에 .19, 부부만족도에 .25, 부부결합도에 .20, 애정표현도에 .18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이 높아질수록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가 낮

〈표 5〉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 및 결혼적응과 관련된 변인의 직접·간접효과

성별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종속변인
여성	원가족의 아버지/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14	-.01	-.15	애정표현도
		-.25	.	-.25	불안
		.22	.	.22	행복감
		.15	.15	.30	부부일치도
	원가족의 아버지/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20	.14	.34	부부만족도
		.10	.11	.21	부부결합도
		.21	.10	.31	애정표현도
		.34	.	.34	불안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18	.	-.18	행복감
		-.05	-.18	-.23	부부일치도
		.	-.16	-.16	부부만족도
		.	-.08	-.08	부부결합도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13	-.11	-.24	애정표현도	
	.18	.	.18	행복감	
	.08	.03	.11	부부일치도	
	.27	.05	.32	부부만족도	
불안	.18	.04	.22	부부결합도	
	.05	.03	.08	애정표현도	
	-.43	.	-.43	부부일치도	
	-.35	.	-.35	부부만족도	
행복감	-.26	.	-.26	부부결합도	
	-.23	.	-.23	애정표현도	
	.19	.	.19	부부일치도	
	.25	.	.25	부부만족도	
	.20	.	.20	부부결합도	
	.18	.	.18	애정표현도	

아지고,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 결합도, 애정표현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혼여성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이 어떤 것인지 총효과를 살펴보면, 불안이 부부결합도, 부부만족도, 부부일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가 애정표현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해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및 행복감이 기혼남녀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 영향을 성에 따라 살펴보고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을 강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교육 현장, 아동·가족 상담현장에서 자녀 혹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닌 원가족과의 경험을 탐색하여 원가족 경험이 개인의 정서 및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고 접근하여 상담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분화경험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불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분화수준이 낮을 경우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한 Bowen의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가족분화수준과 불안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족분화수준과 행복감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선행연구(남순현, 2000)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로 가족분화수준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매개에 의해 세대 간 전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연구 결과는 가족 내 세대과정은 병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남순현, 2000)는 의견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적인 정서인 행복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정서인 불안을 낮추기 위해 원가족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남성과 여성 모두 원가족과 분화경험이 불안, 행복감을 통하여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원가족 분화가 높을수록 개인의 불안 수준이 낮고 낭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전영주, 2002), 부모와의 관계에서 융합과 통제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지각하고 있는 자녀들이 높은 불안을 보였고, 자녀가 이성과 의사소통하는 유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Benson et al., 1993), 신혼부부들이 원가족과 높은 수준의 가족분화를 보일수록 결혼 당

시 부모와의 분리에 불안감을 덜 느끼고, 이런 불안감이 결혼 이후에 부모와의 관계의 질과 부부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남순현, 한성열, 2003; 정은희, 2004)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남·여 모두 성장기에 부모와 긍정적인 분화를 경험하는 것이 후에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높여 주고 결혼생활을 강화하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바탕이 된다는 것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성과 여성 모두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이 불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분화의 수준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집단이 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이미경, 2005)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하며, 한 개인의 부적응 행동이 가족 성원들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는 제석봉(1989)의 주장과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쉽게 불안해하며 이러한 불안은 개인의 만성불안으로 작용하게 되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긴장하게 되고, 이러한 긴장은 개인의 역기능을 가져와 가족 정서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Kerr와 Bowen(1988)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과거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은 개인이 가족체계의 구성원일 때보다 사회집단의 일원일 때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인 가치관은 개인주의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과거 어머니의 치마폭에 가려있던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다른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지각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에서 아버지가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남순현, 한성열, 2002). 본 연구는 과거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덜 관여하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족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생각되었던 것과는 달리, 아들과 딸 모두에게 가족관계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넷째, 남성과 여성 모두 불안과 행복감이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개인적 불안이 낮을수록 연인에 대한 친밀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전영주, 2002),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김소영, 2003)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불안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문제에 몰두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패턴이 부적응 적이고, 거절 행동과 회피 행동을 창출해 내서 결혼적응도 낮아지며,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만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여 결혼적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남성의 경우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의 경험과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경험이 결혼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에게는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의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부모와의 관계를 부부관계에서 재현하지 쉽다는 남순현과 한성열(2003)의 연구, 원가족 경험이 높을수록 결혼의 적응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김현정(1999)의 연구, 딸이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을 적게 경험할수록 결혼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이 높다는 전준애(1994)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자아분화 정도와 결혼적응도,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선행연구(조은경, 2001; Mee-Gaik, 1991), 아내의 분화 수준이 남편의 분화 수준보다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한 연구(Lim & Jennings,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원가족의 건강성과 이성교제 파트너에 대한 친밀감간의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에는 원가족의 건강성이 높을수록 파트너에 대한 친밀감이 높으나, 여성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선행연구(차정화, 전영주, 2002)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는 남자는 여아보다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이 되도록 격려 받는 반면 여아는 의사소통, 친밀감, 정서와 같은 상호 인간적인 관계에 민감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Gilligan(1982)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결혼한 후 원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라도 딸이 아들보다 부모와 더 잦은 접촉을 하고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가족의 영향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경도가 성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어 원가족 분화경험과 불안, 행복감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에 따라 살펴본 것에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경험의 하위 요인은 남성의 경우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로 나타났으며,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경험의 하위 요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이 불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혼 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균형 있는 연결성과 분리성의 상호작용

이 불안과 행복감을 통해 결혼 후의 자녀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건강한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이 건강한 가족의 기본이고 유용한 가족과정이며 핵심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갖도록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불안과 행복감이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남성의 결혼적응에는 원가족에서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의 경험이 불안을 통하여 부부일치도, 부부만족도, 부부결합도, 애정표현도에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원가족에서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을 경험했다고 지각하는 것이 애정표현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성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원가족과 분화 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불안과 행복감이 매개역할을 해주었으며, 성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불안과 행복감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가족 분화경험이 현재 개인의 정서와 부부간의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원가족의 영향력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30대 기혼 남녀의 표집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령대로 나누어 비교할만한 충분한 표본수를 표집하여 연령에 따라 원가족 분화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후속연구는 부부를 쌍으로 하여 부부간의 원가족 분화경험의 차이가 불안과 행복감 및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 기혼남녀의 불안과 행복감이 결혼적응의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개인의 불안과 행복감의 중요성을 밝히고 부부갈등이나 갈등 대처 행동, 결혼 안정성 등 다른 결혼생

활의 영역에서 불안과 행복감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소영(2003).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적응관계 연구 -자아존중감, 정서안정성 및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1999).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주시 결혼초 기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 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순현, 한성열(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33-49.
- 남순현, 한성열(2003). 신희기 부부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결혼 후 친밀감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05-523.
- 서연석(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2005). 청소년의 가족 분화와 대인관계 적응 -우울과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박화윤(1999). 유아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9(2), 21-41.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주(2002). 한국 성인초기 미혼남성의 원가족 요인이 불안을 매개로 낭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1), 207-221.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2000). 한국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Satir치료모델의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 8(2), 65-86.
- 정은희(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경(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화, 전영주(2002). 이성교제 커플의 원가족 건강성과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39-57.
- 최현미(1997). 원가족척도연구: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7). **2006년 혼인·이혼통계결과**. 서울: KDI 경제정보센터.
- 한영숙(2007).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59-272.
- Anderson, S. A., & Sabatelli, R. M.(1990). Differentiating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Conceptual and operational challeng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8, 32-50.
- Anderson, S. A., & Sabatelli, R. M.(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s; DIF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 89-101.
- Benson, M. J., Larson, J., Wilson, S. M., & Demo, D. H.(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663-672.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1978).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Friedman, E. H.(1991). Bowen theory and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Y: Brunner/ Mazel.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Kammann, R., & Flett, R.(1983). Affectometer 2: A scale to measure current level of general happiness. *Australian of Psychology*, 35, 259-265.
- Kerr, M. E., & Bowen, M.(1988). *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New York/London: Norton Company.
- Lim, M-G., & Jennings, G. H.(1996). Marital satisfaction

-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Mee-Gaik, N.(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y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and unhealthy unlike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Olson, D. H., & Hawley, D. R.(1992). *Self-training counselor's manual: Pre-pare, Prepare-MC, Enrich*. Prepare/ Enrich inc.
- Skowron, E. A.(1995).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Construct validation and test of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at Albany.
- Skowron, E. A., & Elizabeth, A.(2000) *The role of differentiation of self in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2), 229-237.
- Spanier, G. B.(1976). *Measuring dynamic adjustment: New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8, 15-28.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 Lushene, R. E.(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Stahmann, R. F., & Hiebert, W. J.(1980). *Premarital counseling*. New York: Lexington Books.

접 수 일 : 2011년 5월 4일

심사시작일 : 2011년 5월 6일

게재확정일 : 2011년 6월 21일